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신념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Belief about Elementary Music Instructional Goals

윤문정*

Moonjung Yoon

초록 본 연구는 예비초등교사의 음악교과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신념을 알아본 후 학년과 교원양성과정에서 수강한 음악수업 수에 따라 신념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C 교육대학교 재학생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초등교사 중 음악을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초등음악교수목표 중 여흥/오락적 목표 영역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자기표현력을 기르는 것과 창의력 발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신념은 학년이 높을수록, 수강한 음악과목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음악교육발전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음악교육, 예비초등교사, 교사신념, 초등음악교수목표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beliefs toward elementary music instructional goals, and analyzed statistically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beliefs according to grade and number of music classes taken. Participants(n=432) were asked to answer survey questions regarding elementary music instructional goals and the importance of music in elementary curriculum. According to the results, one person answered that music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and most participants answered that important elementary music goals were to develop self-expression and creativity. The belief in the overall elementary music instructional goals tended to be lower as the grade increased and the number of music subjects taken increased. With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and follow-up research were offered.

Key words: music education,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eachers' belief, elementary music instructional goals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oonjungyoon7@hanmail.net

Associate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65 Cheongnam-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I. 서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에 맞춰져 있지만 교육 과정을 해석하여 실제 수업내용을 선정·구성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교사이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수업을 해도 교사의 신념과 개인적 관심에 따라 교육실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교육신념은 수업의 전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Lee & Kim, 2019; Olsen & Kirtman, 2002). 장인옥, 전평국(Jang & Jeon, 2001)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에 대한 교사의 신념에 따라 실제 수학 교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수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교육 맥락에 적절한 이해와 수업 계획,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 내용, 교수 자신의 행동은 교수자가 갖고 있는 교과 및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혜영, 2008; Brickhouse, 1990). 카간(Kagan, 1992) 역시 개인의 신념이 지식보다 강하게 행동을 통제하므로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려면 교사신념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장인옥, 전평국(Jang & Jeon, 2001, p.85에서 재인용).

교사신념이란 교육의 목표, 학습, 교수 과정 등에 대한 가정을 통합하는 이해구조이자 교사 개인의 교육적 성향이며(Choi, & Lee, 2007), 광범위한 의미로는 교사가 사고 및 행동하는 모든 순간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해당 교과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Kwak & Kim, 2018). 양수연(Yang, 2001)은 교사신념은 교사의 개인적 경험과 가치, 다양한 배경에 의해 표상되는 것으로 학습자, 수업, 교과, 교육과정, 학교 환경 등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해 교사가 가지는 내적 믿음과 태도를 아우르는 집합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교사가 갖고 있는 교육신념과 동일 개념으로는 가치(value), 태도(attitude), 판단(judgement), 견해(opinions), 이해(understanding), 지각(perceptions), 개념(conceptions), 경향(dispositions), 관점(perspectives), 선개념(preconceptions), 개념체계(conceptual system),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ies), 개인 이론(personal theories), 실제 지식(practical knowledge) 등이 통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선택은 그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가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된다(Calderhead, 1996, 정혜영, 2008, p.237에서 재인용). 백혜선과 방상호(Paik & Paeng, 2021)은 Pajares(1992)의 연구를 인용하여 교사신념은 교육 전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영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주제나 영역에 대한 신념, 다시 말하면 ‘무엇에 대한’ 교사의 신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교사신념은 특정 대상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세분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사신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교사신념이란

교육 또는 교과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교육적 요소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교과와 교사신념에 대한 연구 중에서 음악교과와 관련된 교사신념 연구로는 도유진과 이수연(Do & Yi, 2021)이 중등예비음악교사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한 후 교육신념의 의미와 형성요인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 결과 중등예비음악교사는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류와 소통,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자기 관리, 질 높은 수업 등을 중요한 교육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교육신념의 형성 요인은 자신들이 학생일 때 받은 교육 경험, 교육현장에서의 경험, 성장과정에서의 교사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자(Lee, 2015)는 404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음악지식 및 음악교수불안이 유아음악교육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음악교육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음악개념 지식, 음악활동 영역별 내용 지식, 음악활동 불안 등이었다. 하쉬(Hash, 2010)는 예비초등교사가 갖고 있는 음악교과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여러 태도 등을 알아보았다.

음악 외의 교과 중에서 과학과 관련된 연구로는 두 명의 중학교 과학교사 인터뷰를 통해 과학 실험실습에 대한 교사신념을 알아본 연구(팽애진, 백성혜, 2005), 초등예비교사 249명과 현직교사 198명의 과학 교수학습에 대한 신념 연구(Lee & Jang, 2014), 과학 수업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초등교사의 과학 교수, 학습, 본성에 대한 신념을 알아본 연구(Kim & Yoon, 2013)등이 있었다. 이밖에 예비미술교사와 초등교사들의 미술교육의 목적에 대한 신념을 연구한 김항기(Kim, 2002, 2004)의 연구가 있었고, 예비초등교사와 현직초등교사의 수학 신념을 성별, 전공별, 학력별, 경력별로 알아본 연구(Kwak & Kim, 2018), 국어교사의 신념에 따라 읽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본 연구(Paik & Paeng, 2021)등이 있었다. 무용교육 목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연구한 오세복(Oh, 2008)은 교육 주체인 교사가 초등 무용교육의 중요성과 무용교육 목표를 인식하고 설정하는 것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사신념은 가변적이며 학습자,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직경력, 교육실습 등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Kim, 2002; Choi, & Lee, 2007; 정혜영, 2008; Flores, 2001).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 교원양성 과정과 내용이 교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했다. 이지혜와 장신호(Lee & Jang, 2014)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과학 수업 설계와 실행에 대한 신념이 학년 간 차이가 났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축적되는 지식과 교육실습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진호 외(Kim et al., 2019)의 연구에서도 예비교사의 수학학습에 대한 신념 변화가 2학년과 3학년에서 수강한 수학교육 교과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소정과 김기주(Oh & Kim, 2019) 역시 예비언어치료사들이 교육과정에서 익히는 이론과 지식들이 교육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몇몇 연구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희백과 김도우(Kim & Kim, 2000)의 연구에서 과학교육 수강 전후의 교육신념을 알아본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영민, 이현주, 김재권(Kim et al., 2013)은 예비과학교사들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 수업에 긍정적인 신념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으나 4학년이 되어서도 신념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혜경(Kim, 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미적 효능에 대한 신념은 교생실습을 다녀오지 않은 예비교사들에게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났고, 교생실습은 음악 중요성에 대한 신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준비 교육은 신념 형성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Jang & Jeon, 2001).

교사 한명이 전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특성상 초등음악교육의 교수내용과 방법 등은 음악과목에 대한 교사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예비초등교사들이 갖고 있는 음악교과에 대한 신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초등음악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과의 중요도에 대한 생각과 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신념을 알아본 후, 이 신념이 학년과 수강한 음악과목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교사교육과정에서 이수하는 과목이나 프로그램이 예비교사 신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도 있지만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교육대학교의 음악 과목이 예비교사의 신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만약 영향을 준다면 수강한 음악과목의 수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교원양성기관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통계적인 분석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인에 따른 신념 변화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C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교사 1학년(140명), 2학년(126명), 3학년(130명), 4학년(27명)이며, 전공은 미술, 실과, 음악, 교육학, 체육, 윤리, 과학, 사회, 국어, 영어, 음악, 수학, 컴퓨터 교육과로 전공학과가 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가 교원양성 기관에서 수강한 음악 과목 수는 1과목이 113명(26.7%), 2과목이 50명(11.8%), 3과목이 100명(23.6%), 4과목 이상이 160명(37.8%)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그동안 수강한 음악과목의 수를 알아보는 질문, 초등 교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알아보는 질문, 음악 교수목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신념을 알아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음악교수목표와 관련된 질문은 Abril과 Gault(2005)가 초등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EMGS(Elementary Music Goals Survey)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EMGS는 다양한 초등 음악 교수목표들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음악교육 목표는 다섯 개 영역으로(음악적목표, 창의적/표현적 목표, 사회문화적 목표, 학제 목표, 유희/오락적 목표)로 범주화되어 있고, 총 1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일부를 수정하고, 의미가 비슷하여 한 개 문항으로 만들어도 큰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 하나의 문항으로 압축하여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사회문화적 목표에서 ‘다른 문화를 가르치기’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기’는 두 문항의 문장을 연결하여 한 개의 문항으로 만들었고, ‘학업으로부터 휴식’과 ‘정신적인 이완’ 목표는 예비초등교사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구하는 바가 의미상으로 통하기에 이 역시 한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밖에 ‘미국’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한다는 문항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로 수정하였다(<Table 1>과 <Table 6> 참고).

각 질문은 “초등음악교육은(에서는) ~ 중요하다”로 문장구성이 된다. 예를 들면, ‘초등음악교육은 음악 구성요소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음악교육은 우리나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이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리커트 5점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강한 부정)-그렇지 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강

한 긍정)를 이용하여 응답 가능하게 하였다. EMGS는 Abril과 Gault에 의해 이미 신뢰도 검사가 실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도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0.6이상을 신뢰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신뢰수준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Table 2> 참고).

<Table 1> Organization of survey questions

	Abril & Gault(2005)* EMGS	This study
N of questions	Total: 18 questions	Total: 15 questions
Categories (N)	5 categories Musical (6) Creative/Expressive (3) Sociocultural (3) Interdisciplinary (3) Entertainment/Recreation (3)	5 categories Musical (6) Creative/Expressive (3) Sociocultural (2) Interdisciplinary (2) Entertainment/Recreation (2)
Modified questions	• A way to maintain and pass on <u>American</u> culture	A way to maintain and pass on <u>Korean</u> culture
	• 2 sentences with similar meanings in sociocultural category	Compression into 1 sentence
	• 2 sentences with similar meanings in interdisciplinary category	Compression into 1 sentence
	• 2 sentences with similar meanings in entertainment category	Compression into 1 sentence

<Table 2> Reliability of survey questions

Categories		Cronbach's α
Elementary music goals survey	Musical	.689
	Creative/Expressive	.704
	Sociocultural	.772
	Interdisciplinary	.687
	Entertainment/Recreation	.647
	All categories	.796

3. 자료 분석

설문지를 취합 한 후 SPSSWIN 25.9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참여자의 배경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의 빈도(Frequency Analysis), 평균의 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와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인 유의 수준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음악교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

다음은 예비초등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초등교과를 학년별로 조사하고, 음악과목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비초등교사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서 교원양성 과정에서 수강한 음악 과목 수에 따라서 음악 교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학년에 따른 차이

예비초등교사가 초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국어와 수학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국어는 1학년 35.7%, 2학년 65.9%, 3학년 65.4%, 4학년 74.1%로 전 학년에 걸쳐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학의 경우는 1학년의 응답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결과이고, 과학과 미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비초등교사는 전 학년에 한 명도 없었다.

본 논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음악교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 432명 중 1학년에서 단 1명이 음악교과가 초등교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명이기 때문에 학년별 통계적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 결과는 <Table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Importance of subject by grade level (by alphabetical order)

Grade	Subject											$\chi^2(p)$
	Fine Arts	English	Korean	Math	Moral	Music	Physical	Practical	Science	Social	Total N (%)	
1	0 (.0)	9 (6.4)	50 (35.7)	33 (23.6)	26 (18.6)	1 (.7)	16 (11.4)	2 (1.4)	0 (0)	3 (2.1)	140 (100)	62.834*** (.000)
2	0 (.0)	4 (3.2)	83 (65.9)	23 (18.3)	3 (2.4)	0 (.0)	9 (7.1)	0 (.0)	0 (0)	4 (3.2)	126 100.0	
3	0 (.0)	4 (3.1)	85 (65.4)	12 (9.2)	13 (10.0)	0 (.0)	8 (6.2)	0 (.0)	0 (0)	8 (6.2)	130 100.0	
4	0 (.0)	0 (.0)	20 (74.1)	0 (.0)	2 (7.4)	0 (.0)	4 (14.8)	0 (.0)	0 (0)	1 (3.7)	27 100.0	
Total N (%)	0 (0)	17 (4.0)	238 (56.3)	68 (16.1)	44 (10.4)	1 (.2)	37 (8.7)	2 (.5)	0 (0)	16 (3.8)	423 100.0	

* $p<.05$, ** $p<.01$, *** $p<.001$

2) 수강한 음악과목 수에 따른 차이

음악과목 수강 정도에 따라 음악교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 하였으나, 음악교과를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 학년에서 1명뿐이었으므로 학년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Table 4>를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1과목을 수강했을 때 보다는 2과목 수강했을 때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예비초등교사가 생겼고, 수강한 과목수가 3과목이었을 때 다시 0명이 되었다.

<Table 4> Importance of subject by taking music courses

	Number of music classes					$\chi^2(p)$
	1	2	3	4+	Total	
Number of Answers (%)	0 (.0)	1 (2.0)	0 (.0)	0 (.0)	1 (.2)	60.039*** (.000)

* $p<.05$, ** $p<.01$, *** $p<.001$

2.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신념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신념을 음악교수목표 영역과 세부 항목 별로 알아보았고, 학년과 음악과목 수강 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영역별/ 세부 항목별 신념

초등음악교수목표 영역별로 보면 여흥/오락적 목표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예비초등교사는 초등음악교과의 교수 목표는 오락적인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창의적/표현적 목표(4.55)였고, 가장 낮은 영역은 음악적 목표(3.97)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참고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응답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goal category

Elementary music goals category	Mean	St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Musical	3.97	0.50	0.14	0.13
Creative/Expressive	4.55	0.49	-0.93	0.32
Sociocultural	4.23	0.62	-0.55	-0.18
Interdisciplinary	3.81	0.76	-0.54	0.69
Entertainment/Recreation	4.47	0.57	-0.88	0.41

영역별로는 ‘오락’영역이 가장 높았지만,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창의적/표현적 목표’ 영역의 ‘자기표현력을 기르는 것’(4.68)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것(4.55)이었다. 음악교수목표 중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항목은 ‘음악적 목표’에서 ‘음악 만들기를 가르치는 것’(3.40)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낮은 항목은 ‘학제 목표’ 영역의 ‘다른 과목의 학습을 강화하는 것’(3.59)로 나타났다. 결과를 자세히 정리한 내용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y question items

Categories	Items (statements)	M	S. D
Musical	It is important for elementary music education to~		
	(1) Teach the musical elements(rhythm, melody etc.)	4.24	.686
	(2) Teach children to sing properly	4.06	.816
	(3) Teach music literacy	3.79	.878
	(4) Improve musical listening skills	4.19	.780
	(5) Teach children a repertoire of songs	4.04	.714
Creative /Expressive	(6) Teach children to play an instruments	3.50	.917
	(7) Develop and encourage creativity	4.55	.598
	(8) Encourage self-expression	4.68	.541
	(9) Teach children to be more musically sensitive	4.41	.695

<Table 6> Continued

Categories	Items (statements)		
Sociocultural	(10) A way to maintain and pass on Korean culture	4.22	.796
	(11) Teach children about other cultures / to be more accepting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4.25	.694
Interdisciplinary	(12) Teach children about other cultures	3.59	.872
	(13) Make connections with academic subjects Interdisciplinary / Support thematic units of the regular class Interdisciplinary	4.02	.867
Entertainment /Recreation	(14) Be fun	4.51	.611
	(15) Provide a break from academics & be simple and mentally relaxing	4.43	.702

2) 학년에 따른 차이

사후검증을 통해 학년별로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신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Table 7>은 이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음악적 목표, 창의적/표현적 목표, 사회문화적 목표는 학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목표와 창의적 목표는 학년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학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목표는 학제 목표와 오락적 목표였는데, 학제 목표는 3, 4학년에서 낮게 나타났다. 여흥/오락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신념은 1학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 영역의 초등음악교수목표가 중요하다는 신념은 1,2학년 보다는 3,4학년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Belief for EMGS by grade

Category		Musical	Creative /Expressive	Socio-cultural	Interdisciplinary	Entertainment /Recreation	All EMGS
Grade							
Grade	1(a)	3.99±.50	4.61±.43	4.33±.63	3.97±.72	4.64±.49	4.24±.37
	2(b)	4.03±.54	4.51±.52	4.15±.67	3.91±.71	4.41±.61	4.18±.41
	3(c)	3.91±.48	4.50±.51	4.23±.56	3.62±.79	4.36±.57	4.09±.37
	4(d)	3.86±.36	4.64±.44	4.13±.63	3.41±.69	4.39±.53	4.06±.30
	F(p)	1.802 (.146)	1.736 (.159)	1.929 (.124)	8.735*** (.000)	6.767*** (.000)	4.468** (.004)
	scheffe				a,b>c>d	a>b,c,d	a,b>c,d

* p<.05, ** p<.01, *** p<.001

3) 수강한 음악과목 수에 따른 차이

<Table 8>에 따르면 목표 영역별로 살펴보면 음악적, 창의적, 사회적 영역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학제 목표와 여흥/오락적 목표였다. 학제 목표는 과목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교수목표가 중요하다는 신념이 낮아졌고, 여흥/오락적 목표는 3과목을 수강했을 때 가장 낮았다가 4과목 이상 수강하면서 조금 올라갔다. 음악과목 수강정도에 따른 전체적인 초등음악교수 목표에 대한 신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수강한 과목이 3, 4과목으로 많아질수록 오히려 전체적 신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8> Belief for EMGS by number of music courses taken

Category N= Music Courses	Musical	Creative /Expressive	Socio cultural	Interdiscip- linery	Entertainment /Recreation	All EMGS
1(a)	4.00±.49	4.60±.45	4.33±.64	3.96±.74	4.65±.48	4.25±.36
2(b)	4.02±.51	4.55±.44	4.20±.61	3.97±.60	4.53±.56	4.21±.38
3(c)	4.01±.53	4.52±.56	4.22±.66	3.83±.75	4.34±.62	4.16±.42
4+(d)	3.91±.48	4.53±.47	4.18±.59	3.63±.79	4.41±.56	4.10±.37
<i>F(p)</i>	1.281 (.281)	.715 (.543)	1.373 (.251)	5.322*** (.001)	6.868*** (.000)	3.611* (.013)
<i>scheffe</i>				a,b>c>d	a,b>c,d	a,b>c,d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교과와 중요도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인식과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았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초등교사 43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대부분의 예비초등교사들은 국어와 수학 교과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음악을 가장 중요한 교과라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연구자는 학년에 따라 그리고 음악과목 수강 정도에 따라 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1명이라는 결과로 인해 이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초등음악교수 목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신념을 영역별로 봤을 때 여흥/오락적 목표 영역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세부 항목에서는 ‘자기표현력을 기르는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중에서 ‘음악적 목표’와 세부사항 중에서 ‘음악만들기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년과 음악 과목 수강 정도에 따른 초등음악교수 목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신념 결과를 보면 음악적 목표, 창의적/표현적목표, 사회문화적 목표는 차이가 없었으며, 학제 목표는 3, 4학년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강과목이 많을수록 낮아졌고, 여흥/오락적 목표는 1학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높은 학년에서는 낮았고, 수강과목수가 2과목, 3과목일 때 낮았다가 4과목 이상 들었을 때 조금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적인 초등음악교수목표 중요도에 신념은 3, 4학년으로 갈수록, 3과목 이상 수강했을수록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제한점에서 제시하였듯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와 원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함께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수강 과목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초등음악교수목표 중요도에 대한 신념이 낮아지는 결과를 통해 음악과목이 예비초등교사의 신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을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학년에서 단 1명 있었고, 학년이 높을수록 수강한 음악과목의 수가 많을 수록 이 숫자는 0으로 줄었다. 음악이 이른바 주요과목이라고 일컬어지는 교과는 아니지만 432명중 1명이라는 숫자는 초등음악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교과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초등교원양성대학에서 음악교과가 초등학생에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전체적인 초등음악교수목표에 대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강과목수가 많을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학년과 수강과목이 예비초등교사의 음악교수목표 신념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악적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음악교수목표의 중요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초등교사의 신념은 초등음악 수업의 방향과 실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원양성대학의 음악수업은 예비초등교사가 음악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가 된 후 음악교과를 가르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 의식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수업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교수목표로 제시된 영역과 세부 항목들은 모두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으나, 음악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신념이 가장 낮고, 여흥/오락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신념이 높은 것은 음악교과를 여가를 즐기는 정도의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결과는 중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목표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음악적 목표는 음악교과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 성장과 음악 기량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 음악성 계발은 음악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며, 음악을 향수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주는 것으로, 음악교육의 지향점이자 (승윤희 외, 2020) 음악교과의 기본적인 학습의 방향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초등교사가 초등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음악적 목표가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적 목표가 초등학생의 음악성 계발과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예비초등교사가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교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을 조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교과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척도를 통해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교과에 대한 중요도와 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신념을 통계적 수치로만 결과를 얻었고, 음악교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는 반대) 이유와 음악교수목표에 대한 개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이 부분이 보강되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종적인 추적연구를 실시하기를 제안한다. 종적 추적 연구를 하면 보다 신념 변화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 할 수 있고, 수강한 음악과목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신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전-사후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여러 교육대학교의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수목표에 대한 신념을 알아본다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예비초등교사와 현직 초등교사의 신념을 조사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실행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초등음악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예비초등교사의 신념을 알아보는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bril, C. R., & Gault, B. M. (2005). Elementary educators' perceptions of elementary general music instructional goal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4, 61-69.
- Bae, S. Y., & Kwon, S. (2022). Analysis of eye movements during perusal time according to musical structure and sight-reading ability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3), 75-93.
- Baek, J. H., & Yoon, S. J. (2021). Exploring pre-service elementary generalists' past elementary pshysical education experiences and beliefs. *Journal of Holistic Education*, 25(1), 117-134.
- Battersby, S. L., & Cave, A. (2014). Preservie classroom teachers' preconceived attitudes, confidence, beliefs, and self-efficacy toward integrating music in the elementary curriculum. *Update: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2), 52-59.
- Berke, M., & Colwell, C. C. (2004). Integration of music in the elementary curriculum: perceptions of preservice elementary education majors. *Update: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3(1), 22-33.
- Brickhouse, N. W. (1990). Teachers' beliefs about the nature of sc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lassroom practic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1(3), 53-62.
- Cho, D. H. (202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ceptions and needs of second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and incumbent music teachers on teacher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1(3), 179-205.
- Choi, J. Y., & Lee, K. J.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raditional and learner-centered beliefs and instructional practice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teachers at different stages of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4(2), 313-335.
- Choi, M. Y. (2015). A study on educational needs analysis of preliminary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music teaching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2), 163-184.
- Choi, Y. L., & Lee, Y. K. (2020). Analysis of physical educational belief types of pre-teache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305-323.
- Chung, H. Y. (2008). A study on preservie teachers' changes of educational beliefs

- through student teaching experienc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235-257.
- Do, Y. J., & Yi, S. Y. (2021). A study on the pre-service middle school music teachers' perception of educational belief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6(1), 143-173.
- Flores, B. B. (2001). Bilingual education teachers' beliefs and their reaction to self-reported practices. *Bilingual Research Journal*, 25(3), 275-299.
- Hash, P. (2010). Preservice classroom teachers' attitudes toward music in the elementary curriculum.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19(2), 6-24.
- Jang, I. O., & Jeon, P. K. (2001). Case stud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beliefs about mathematics and teaching practice.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11, 85-105.
- Jang, K., Woo, P., Jang, J., & Lee, O. (2020).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eachers' belief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practices: Implications for continuity of P.E.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4(4), 373-386.
- Jeon, K. (201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goal orientations for science teaching and their images of science class.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37(4), 430-439.
- Kagan, D. (1992). Professional growth among preservice and beginning teache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2), 129-168.
- Kim, H. B., & Kim, D. W. (2000). The relationship of learning strategies and beliefs about science and school science.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18(2), 119-130.
- Kim, H. G. (2002). Primary teachers beliefs about the purpose and curriculum of arts and their variabl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4(4), 125-146.
- _____ (2004). Pre-service art teachers' beliefs toward art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18(1), 31-52.
- Kim, H. K. (2015).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beliefs about music related to field experi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645-660.
- Kim, J., & Yoon, H. G. (2013). Elementary school teachers' beliefs about science teaching,

- science learning and the nature of science.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7(2), 389-404.
- Kim, J. H., Kang, E. K., Kim, S., Kwom, S., Park, M., & Cho, S. (2019). A study on pre-servie elemetnary teachers' mathematical beliefs about the nature of mathematics and the mathematics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C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2(1), 49-64.
- Kim, S. J., Kim, T. Y., Lim, H. J., Choi, H. J., & Heo, J. Y. (2013). How do elementary school techers in Korea adopt themselves toward education goal ambiguit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0(1), 231-256.
- Kim, Y., Lee, H., & Kim, J. (2013). Korean pre-service science teachers' belief o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and its evolu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7(1), 40-51.
- Ko, J. C. (2011). Preservie primary teachers' percep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primary teachers and their educational belief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8(1), 1-22.
- Kwak, S., & Kim, J. (2018). Analysis on the belief about mathematics of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 Series C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1(3), 329-349.
- Lee, C. J. (2015). The effects of preservie early childhood teacher's music knowledge and music teaching anxiety on beliefs of music education for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4(4), 229-246.
- Lee, H. E., & Hwang, H. I. (2010). Elementary school teachers' views on and requests related to the intefrated curriculum: With a fouds on the 2007 & 2009 draft revi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2), 277-290.
- Lee, J., & Jang, S. (2014). Elementary pre-servie and in-service teachers' beliefs on science teaching-learning and instructional practices. *The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Education*, 25(3), 209-225.
- Lee, J. H., & Kim, E. J. (2019). The effect of earlu childhood teachers' teacher efficacy, teaching beliefs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teach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Open Parent Education*, 11(2), 187-209.
- Lee, K., & Choi, J. (2007). A longitudinal case study on an elementary teacher's curriculum implementation: Analyzing classroom tasks and discours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215-245.

-
- (2008). A case study on changes in elementary teacher's beliefs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207-233.
- Lee, M. S. (2018). The Effect of the musical environment at home and the music engagement of the pre-service childhood teachers on music teaching inten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music teach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4), 129-156.
- Oh, S., & Kim, K. (2019). The effect of responsive teaching curriculum on the educational beliefs of preliminary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0(1), 117-132.
- Oh, S. B.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objectives in dance education and capabilities in dance clas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13(2), 75-85.
- Olsen, B., & Kirtman, L. (2002). Teacher as mediator of school reform: an examination of teacher practice in 36 California restructuring schools. *Teachers Record*, 104(2), 301-324.
- Paik, H., & Pang, S. (2021). Korean language arts teachers' beliefs and classroom practices in teaching rea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174, 203-231.
- Paik, S. H., & Paeng, A. J. (2005). A case study of secondary school science teachers' faiths on experiments in science class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25(2), 146-161.
- Pajares, F. M. (1992). Teachers' beliefs and educational research: Cleaning up a messy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07-332.
- Park, J. J. (2007). The beliefs of classroom teachers about teaching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3), 149-161.
- Seung, Y. H., Min, K. H., Yang, J. M., & Chung, J. W. (2019). *Music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eoul: Hakjisa.
- Yang, S. (2021). A case study of teachers' beliefs as practical knowledge in Korean language clas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6(4), 119-164.
- Yun, G. K. (2014).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about the instructor's feedback in pedagogy of music subjec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1), 139-163.